

'마리아 칼라스-세기의 디바'
'호크니'
'이타미 준의 바다'
'바우하우스'
'알랭 뒤카스: 위대한 여정'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1923-1977)의 1958년 파리 데뷔 무대. 그녀의 육성으로 듣는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이여'는 전율이 있다. 붉은 드레스 차림의 고혹적인 그녀가 합창단과 함께 아리아를 부르는 모습은 아련하다. 영상 속 객석에선 '브라보' 소리가 터져 나온다. 마리아 칼라스의 삶을 다룬 영화 '마리아 칼라스-세기의 디바'는 이제는 전설이 된 그녀가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다.

1974년 인터뷰로 시작되는 다큐는 수많은 자료 화면을 통해 그녀의 삶을 복원해낸다. 세계적인 디바로 자리잡는 과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7년간의 결별, 재결된 케네디까지 얽힌 선택왕 오나시스와의 사랑까지 음악과 인생에 대해 그녀는 당당하고 거침없이 소신을 밝힌다.

현재 상영중인 다큐를 보고 나면 한편의 근사한 공연을 감상한 기분이 든다. 특히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등 전성기 무대영상·노래를 듣다보면 그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음에 아쉬워진다. 여기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운명의 힘' 서곡 등 영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주옥 같은 음악들은 가슴을 울린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오르며 그녀가 무대에 등장한다. 푸치니의 '잔니 스키카'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에 영화관에 앉은 이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한다.

아티스트의 삶을 다룬 다큐 영화가 쏟아지고 있다. 예술가의 공금했던 일상과 내면 세계를 고스란히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들의 작품세계를 오롯이 접할 수 있어 흥미롭다.

8월 8일에는 생존 작가 중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예술가의 초상' (1019억원)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호크니의 삶을 다룬 영화 '호크니'가 개봉한다. 이미 30만명이 관람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회(8월8일까지)를 다녀온 이들이라면 더욱 반가울 영화다.

변화무쌍한 작품 세계를 보고 있으면 그의 샘솟는 에너지와 도전의식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만나다 다큐로 그들을

이 시대가 사랑한 아티스트, 공금했던 일상·작품세계 속으로



'마리아 칼라스-세기의 디바'

지는데 다큐 '호크니'는 그 질문에 대한 작은 답이 될지도 모른다.

'호크니'는 그가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한 초기 시절부터 '더 큰 침방', '예술가의 초상', '클라크 부부와 피서' 등 대표작들을 내놓았던 시기, 아이패드도 그림을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대형작품을 제작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호크니의 작품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작품이다. 대표작 탄생 비하인드부터 작품변화까지 사진과 영상,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개봉한 안도 타다오의 다큐에 이어 제주 방주교회 등을 설계한 재일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의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도 8월 15일 개봉한다. 고미술 수집가로 유명한 그는 1968년 이후 매년 한달에 한번 이상 한국을 방문하며 조선의 민화, 고가구, 불상, 백자 등을 수집했다. 이타미 준은 그가 첫 해외여행을 나갔던 오사카 '이타미 공랑'과 의형제를 맺었던 작곡가 김옥운의 '윤'(일본발음 준)에서 따와 지은 이름이다.

그가 디자인한 제주도 포도호텔 투어를 하다보면 자연과 삶의 터전을 존중했던 그의 작품 세계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인 오름과 민가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건물은 두드러지지 않게 낮은 모습으로, 제주 올레길을 따라 펼쳐지듯 지어졌다. 영화에서는 흠뻑으로

벽돌로 완성한 '온양미술관', 석공과 함께 작업하며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석재의 교회', '엠 빌딩' 등도 만날 수 있다.

올해는 세계 디자인계의 혁명을 일으킨 바우하우스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독일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역시 특별전으로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전을 준비중이다.

영화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모토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디자인 혁명의 아이콘' 바우하우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화로 바우하우스의 100년과 그 신념을 이어가는 현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근대 건축의 거장 발터 그로피우스가 1919년 세운 예술종합학교 바우하우스는 단순하고 아름다우면서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미술·무용·음악 등 문화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밖에 애플 수석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가 '애플 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이자, 나의 롤모델'이라고 밝혔던 20세기 산업디자인의 대표주자 디터 램스를 만나는 '디터 램스', 프랜치 요리의 거장 알랭 뒤카스가 베르사유 궁 안에 최초로 레스토랑을 열기까지의 2년간을 담은 다큐 '알랭 뒤카스: 위대한 여정'도 대기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오픈스튜디오'

26일, 청년예술인지원센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송보)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2019년도 입주자 오픈스튜디오를 26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남구 통기타 거리에 위치한 청년예술인지원센터 각 스튜디오 및 1층 문화카페에서 개최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는 광주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개관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센터는 입주자의 창작활동지원, 청년 문화기획자 육성 및 전시·음악·공연 등 상호교류를 통한 청년예술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카페, 창작실, 공연연습실, 사무실 등을 갖췄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미술 분야에서 김연, 김유민, 김은경, 노은영, 박다운, 손연우, 신다성, 하승완 작가를 선정했으며 음악 분야 임주신, 영상단체 박픽처, 연극단체 MOIZ, 그리고 문화 기획자 김동하가 입주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엔 마련된 오픈스튜디오는 2019년도 상반기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자들의 작품 및 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오후 1시부터는 입주 작가들이 직접 선정된 멘토를 초대해 각 스튜디오에서 작품 활동 및 작가로서의 삶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초청 멘토로는 홍원석(서양화), 김지아(판화, 설치), 최요안(서양화), 백상욱(조각), 이인성(서양화) 작가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후배 입주자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작가 및 청년작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북경창작센터와 국제제지던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613-7131. /김미은 기자 mekim@

정지아 작가 28일 강연회

생오지문화창작촌(이사장 문순태) 동인 '글한량'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일곡도서관 대강당에서 '빨치산의 딸' 정지아 작가(사진)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구례 출신 정 작가는 이날 강연에서 '사소하고 어떤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생오지문화창작촌 동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문화와 삶을 들려준다. 지금까지 정 작가는 소외되고 상처 입은 대상들과 함께 연대의 공동체를 그리는 작품을 써왔다. 이날 강연에서는 문순태 작가가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 작가는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한문수문학상,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했다.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숲의 대화', '봄날 오후 과부 셋' 등을 펴냈다. 문의 010-4732-0785.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에 울려 퍼지는 중국 전통 음악

'중국 저장 가무극원 민족악단 초청공연'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중국 민족악단이 선보이는 중국 전통 음악 선율이 광주에서 울려 퍼진다.

'중국 저장 가무극원 민족악단 초청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광주 출신 중국 3대 혁명음악가 정을성을 기리는 '2019정을성음악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이날 공연은 주제가 '강남야문(江南雅韻-중국 강남 지역의 정취)'으로, 민족 관현악곡, 중국 전

통악기 독주, 남녀 독창 연주 등 다채로운 중국 전통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징과 북을 사용한 타악곡 '장군승전령', 천지가 탁 트인 세상에 앉아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청풍취월', 전통극 연극 무대와 함께 여러 감정을 표현한 '옛 무대의 추억', 중국 전통 희곡 곡조 중 하나인 곤곡을 소재로 소녀의 봄을 그린 '춘규몽', 여러 가지 북을 이용해 여 음색과 리듬을 웅장하게 표현한 '용등호악' 등 다양한 민족 관현악곡이 연주된다.



또 중국 전통악기의 특색 있는 소리도 들어 볼 수 있다. 고향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을 표현한 고장협주곡 '고향의 정취', 중국 강남의 특색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피리 독주곡 '자고새 날면', 온갖 새들이 조화를 이룬 소리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인 수오나이 독주곡 '봉황의 노래'를

공연한다. '저장 가무극원 민족악단'은 1957년에 창단된 민족악단으로,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에서 중국 문화부-저장성 정부를 대표하는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670-7466, 7468. /유연재 기자 yjyou@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팔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